

이러다... 서울가는 고속버스 없어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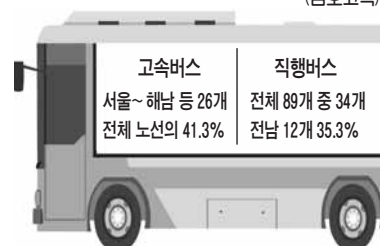
전국 적자 노선 63개 중 26개가 전남 인구감소·자동차 증가로 이용객 급감

금호고속은 최근 서울과 해남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하루 7회에서 6회로 줄였다. 승객에게 받는 요금만으로는 도저히 운송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운행 횟수를 줄였다는 게 금호고속 측 설명이다.
전남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 타

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자가용 운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바람에 버스터미널을 찾는 지역민의 발길이 텅텅 빈다. 금호고속 측은 전체 89개 직행버스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이 3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흥 유치~광주, 광주~무안~지도~점암 등 전남을 오가는 12개 직행버스 노선(35.3%)의 경우 '손님이 없이 연료만 쏟아부으며 달린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 운송 상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광주~목포~노치 직행버스는 지난 5개월간 무려 2900여만원의 적자를 봤다. 곡성~목포~서울을 오가는 직행 버스도 하루 평균 탑승객은 12명에 불과, 하루 한 차례 운행에만 매번 40만원의 운송 적자를 낸다.
고속·직행버스 모두 유동고객 수가 수익과 연관되는 만큼 전남지역의 인구 감소가 승객 급감의 가장 큰 이

유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지난 2003년 202만4422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지난 2011년 193만 8136명으로 떨어졌고 올 6월 말 현재 190만 6575명으로 급감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는 시·군도 적지 않다. 진도의 경우 지난 2000년 4만2297명이었던 주민 수가 2013년 3만3081명으로 줄었고, 2000년 4만 1276명이던 곡성 인구는 올 6월 말 현재 3만 1276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자가용 운전자 증가도 '버스 적자'에 한몫을 했다. 지난 2011년 5월 전

전남지역 버스 적자노선 상태 (금호고속)



남 자동차등록대수는 72만7198대(승용차 47만6585대). 올 5월에는 78만 2152대(승용차 52만4458대)로 늘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노선 확대와 비수익 노선 감소를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원침 (8850) 김장두



안영선 전 목포해양대 총장 직원채용 돈받은 혐의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일 직원 채용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영선(57) 전 목포해양대 총장을 구속했다.

안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정규직 채용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면 안 전 총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과 55범 '酒暴'... 나오자마자 또 행패

서부경찰 40대 검거

불구속 수사에 피해 늘어

상습적 주취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소 이후 6개월 동안 매일 한 차례팔로 동네 주민과 관공서 등에서 주취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불구속 수사에 머물다가 7회만에 구속 수사기로 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상습폭행 등)로 황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벽진동 한 주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함께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여·68)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말리는 이씨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전과가 무려 55범에 이르는 황씨는 지난해 6월 상습적 주취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황씨는 출소 이후에도 주취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고 관공서 등지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취' 행각을 일삼아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펼치는 등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애꿎은 피해자인 이모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부채 없는 못살아"

본격적인 무더위를 예고하고 7월의 첫날인 1일 오후 광주의 수온도가 32도를 넘는 가운데, 행인들이 부채로 햇볕을 가린 채 전남대 후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결혼 전 학벌·소득 과장 했어도 법적으로 혼인 취소 할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과장했다라도 본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3년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다.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친 것에 불과했다. 그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해어졌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려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이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장물 스마트폰 사들인 몽골겨주 한국인 체포

광주서부경찰은 1일 인터넷 등으로 국내 장물 스마트폰을 구입해 온 김모(47)씨를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3일 이모(26)씨로부터 국제 우편으로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4대를 넘겨받은 등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48대(시가 3800만원 상당)를 몽골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스마트폰 매입광고를 올린 뒤, 장물업자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며 매입 방법, 가격 등을 정하고 개당 30만~40만원 선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아들 혼낸 회초리 빼앗아 아내 때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혼내는 부인을 도리어 회초리로 때린 30대 남성이 부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화동동 모 아파트에서 아들(9)의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부인 A(35)씨에게 "왜 아이에게 때를 드느냐"며 말리다 끝내 회초리를 빼앗아 아내의 허벅지를 한 차례 때렸다.

○...부인은 "아들을 가르치기위해 엄마 입장에서 때를 들었는데 남편이 끼어들더니 되레 나를 때렸다"며 억울함을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날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균일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 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날

백련동 나주행 500m 구대교 광주역

大山프리모날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